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증재 및 매개효과-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은 진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 및 매개효과-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은 진

인 준 서

김은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 및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24명이었으며,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IPPA-R),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갈등해결전략 척도(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Friends, Parents, Co-workers: CRM;FPC), 또래관계 척도(Index of Peer Relations: IPR)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청소년의 애착은 또래관계 및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우울 및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부모애착이 우울, 갈등해결전략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중재효과를 알아본 결과, 이들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 갈등해결전략, 매개효과, 중재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애착에 따른 또래관계 6
2. 부모애착, 우울 및 또래관계 8
3. 부모애착, 갈등해결전략 및 또래관계 10

III. 연구 문제

1. 연구 문제 12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14
2. 측정도구
 - 1) 부모애착 16
 - 2) 우울 16
 - 3) 갈등해결전략 17
 - 4) 또래관계 18
3.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19

V. 연구 결과

1.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20
2.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21
1) 우울의 중재효과	22
2)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22
3)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23
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24
1) 우울의 매개효과	25
2)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26
3)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27

VI. 논의

.....	29
-------	----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자기- 타인 이원 모델에 따른 성인 애착 4유형	7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
<표 3> 갈등해결전략의 구성 내용	16
<표 4> 또래관계 척도의 구성내용	17
<표 5>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	21
<표 6>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의 중재효과	22
<표 7>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23
<표 8>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24
<표 9>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26
<표 10>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27
<표 11>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28

그림 목 차

<그림 1>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중재모형	13
<그림 2>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매개모형	1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의미와 이유를 형성해 나간다. 특히 청소년기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습득해 나가는 시기이고, 이러한 대인관계는 다시 청소년기의 이후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대인관계의 결핍이나 문제는 생활의 부적응으로 삶을 위협하고, 이후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한상철, 1998). 즉,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면 인간으로서의 긍정적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은 힘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관계 맺기 및 유지, 친밀감과 자기 노출, 지지행동 등이 애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것은 애착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지지하며, 대인관계를 이해하는데 애착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정희, 심혜숙, 2007).

애착은 개인의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걸쳐 삶의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다. 초기 애착 이론에서는 어머니와 유아와의 관계 속 애착 만이 연구되었으나, 현재에는 Bowlby의 내적작동모델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애착은 전 생애 기간 동안의 대인관계의 기초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해 대인관계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최초의 인간관계 즉,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인 애착과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이다(이창숙, 2007). 특히 가족기능과 지

각된 유능감, 사회적 역할 요구 등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 가치감이 높고 우울 증상 수준이 낮아 정서적 적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발달적 과도기에 애착 행동체계가 더욱 활성화되며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함을(Papini & Roggman, 1992) 알 수 있다. 결국 부모와의 높은 애착 안정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Raja, 1992).

애착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와 타인에 대해 통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안정 애착 집단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자기와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불안정 애착집단은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자기와 부모 표상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애착 집단은 소극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이시은, 이재창, 2004). 그리고 애착의 안정성이 높고 거부성과 두려움성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대인관계 특성을 보였으며, 안정성이 낮고 거부성과 두려움성이 높아질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대인관계 특성을 가진다(안희애, 2006).

그러나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낮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대인관계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의 애착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이 부정적 대인관계로 바로 이어지기 보다는,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혹은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중재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밝혀졌는데, 이 중 많이 논의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로 우울을 꼽을 수 있다.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며, 청소년기에 빈번히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이다(이경님, 2003).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대인관계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밝혀 왔을 만큼, 우울은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

적 적응 문제와 병행되어 나타난다.

단극성 우울증의 유발 및 지속과 관련된 특징적인 대인관계 과정을 연구한 김은정, 권정혜(1998)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상 특징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 사회적 지지 부족, 부족한 사회 기술 그리고 대인관계 내에서의 특징적인 행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수, 오경자(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울집단은 대인관계문제 총점에 있어서 비우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각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영역에 대해서도 비우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를 통해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우울 증상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만성적인 우울집단의 경우는 일시적인 우울증상을 경험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갈등을 더 많이 유발시키고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결과(Burns, Sayers & Moras)도 있다.

이러한 우울은 또한 부모와의 애착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Greenberg(1987)는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우울, 불안 등의 혼란이 낮다고 하였고 Peter et al(2001)은 안정 애착 유형이 불안정 애착 유형보다 불안과 우울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불안정 애착 집단이 안정 애착 집단보다 두 배의 우울증 발병률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Bifulco, 2001)를 통해 부모와의 애착이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애착과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갈등해결전략이 있다. 갈등해결전략은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하여 갈등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성취하는 방식(김나리, 2002)이다. 이러한 갈등 해결 전략을 어떻게 선택하여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성격과 질 만족도가 결정된다(허선이, 2005).

회피와 불안 / 양가애착 사람들이 안정애착 사람들보다 이성 교제 관계에

서 갈등 해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안/양가 애착의 경우에는 갈등 상황에서 쉽게 이성을 잃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비난하는 경향이 있고, 회피 애착의 경우에는 갈등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Levy & Davis, 1998; 허선이, 2005).

그러나 갈등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사건이고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 따른 대응이 관계 유지와 만족도에 있어 주요한 영향(김경희, 2008)을 미친다는 점에서 갈등해결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갈등은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생성하며, 유지 종결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Collins et al, 1997), 청소년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래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은 갈등에 직면하여 이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해결된 결과가 다시 상대방에게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은 어떠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약 이들 변인들이 중재효과가 있다면, 또래관계에 미치는 애착의 효과가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있다면, 애착이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애착이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변인들이 매개효과가 있다면, 부모와의 애착이 안 좋더라도 우울하지 않게 도와주고 효과적 갈등해결전략을 만든다면 또래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즉, 매개변인에 개입함으로써 또래관계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 및 중재효과가 확인된다면, 애착

이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라는 기제를 통해 또래관계와 연관되는 보다 과정적이고 역동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우울을 낮추게끔 하고, 효과적인 갈등해결전략을 활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적 개입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애착에 따른 또래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눈을 맞추는 순간부터 죽는 그 날까지 인간은 부모와 또래,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를 넓혀나간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애정적인 관계들은 형성되기 마련이고, 이는 애착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진다.

Bowlby는 영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단순하고 일방적인 ‘의존성’이라는 개념 대신 ‘애착’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그는 애착(Attachment)을 한 인간이 대부분의 가까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하였고, 양육자와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발달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하였다(Bowlby, 1973). 이와 비슷하게 Ainsworth도 애착을 인간이나 동물이 그 자신과는 다른 특별한 대상과의 사이에 형성하는 애정적인 유대관계라고 정의한 바 있다.

애착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는 Bowlby 주장을 근거로, 최근에는 유아기에서만 애착을 측정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기 · 성인기까지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Bowlby의 주장에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 내적 작동모델은 한 개인이 자신과 세계, 사건에 대해 갖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과 관련된 행동, 사고, 느낌을 조절하고 해석하고 예견하는 것을 돕는다(박경희, 2005). 유아기동안 형성된 애착 관계로부터 형성된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이 청소년기 이후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밀바탕이

되었다.

애착을 안정적으로 경험한 아동의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갖게 되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했던 아동의 경우에는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신의 가치 또한 확신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 사회에 대한 기대 또한 달라지게 되며, 지속적으로 대인관계 속 상호 작용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Collins & Read(1994)는 내적작동모델이 부모 이외에도 애착 인물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부모, 친구, 이성교제 혹은 결혼 관계 등과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개인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애착은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으로 분류(Ainsworth, 1978)되기도 하고 안정형(secure), 몰두형(preoccupied), 거부-회피형(dismissing), 공포-회피형(fearful) 등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 분류하기도 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0).

안정형(secure)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몰두형(preoccupied)은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의존욕구가 강하고 중요한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 여긴다(김은정, 권정혜, 1998). 거부-회피형(dismissing)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립심을 유지하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공포-회피형(fearful)은 거부형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지만, 이에 더불어 자신 또한 가치가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대인관계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기모델

		긍정적	부정적
		타인모델	안정형(secure)
	부정적	거부-회피형(dismissing)	공포-회피형(fearful)

〈표 1〉 자기- 타인 이원 모델에 따른 성인 애착 4유형

(Bartholomew & Horowitz, 1990)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의 애착 유형 중에서는 안정형이 가장 많고 다음이 몰두형, 거부형이며 제일 적은 유형은 회피형으로 나타났다(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이는 성인의 애착 유형이 안정형 > 양가형 > 회피형 순으로 나타난 논문들(신노라, 안창일, 2004)과 일치한다. 비행집단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양가형, 회피형에 해당하는 몰입형과 거부형의 비율도 유의하게 많았다는 결과들도 있다(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 이경숙, 엄혜련, 정영운, 2004).

2. 부모애착, 우울 및 또래관계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애착 안정성은 인지 도식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인지 도식은 자신과 세계를 평가하는 규칙을 제공하므로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오송희, 1998).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개인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도식 자체가 부정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도식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경험과 접하게 되면서 우울 증상을 유발시키는 통로

를 거치게 된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또래애착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은 낮아지며,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나쁠수록 청소년의 우울은 높아진다(이정수, 2006).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애착은 고등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이경님, 2003) 결과도 있다. 결국 안정적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지니게 하며, 이에 영향을 받아 우울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직접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역할과 더불어,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게 되고, 높아진 자기존중감에 의해 우울 또한 감소되는 간접적 영향도 있을 만큼(이경님, 2002) 애착은 우울과 직접·간접관계가 있다.

Carnelley의 연구(1994)에서는 비임상적 우울증은 회피형 집단과 관련되고, 임상적 우울증은 몰입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몰입형과 두려움형은 우울과 상관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인 인지와 대인관계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권정혜, 1998). 이로 미루어보아 애착 유형들은 우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적 강화와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것이 우울한 증상을 다시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Lewinsohn, 1974).

우울 증상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만성적인 우울집단의 경우는 일시적인 우울증상을 경험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갈등을 더 많이 유발시키고 만족도가 저하된다(Burns, Sayers & Moras).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감을 호소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가지게 되며, 이는 심리적 부적응 및 우울증을 낳고(Bowlby, 1989) 이러한 우울증은 다시 비행, 학업부진 및 대인관계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우울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부모애착, 갈등해결전략 및 또래관계

대인 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애착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Cressey와 Hesson-Mcinnis(2001)는 애착 안정성과 갈등 해결 전략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애착은 내적 작동 모델을 통해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관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reeny, 1999).

안정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반응적인 자기 노출하는 동시에 갈등해결에 있어서 조정과 타협을 잘 하고 보다 지지적으로 해결한다(Freemey, Noller & Callan, 1994). 그러나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파괴적, 공격적 행동을 보이며 안정 애착 사람들보다 갈등해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경애, 1994). 또한 안정적 애착을 보일수록 갈등 상황 속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지만, 불안·양가형 애착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리지 않고 감정을 표현함으로 인해 관계 내에서의 갈등 경험도 더 많이 경험한다(김경희, 2008).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안절부절 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는 스트레스를 가져오기도 하고(김정희, 1998), 갈등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낳아 인간관

계의 자체의 단절이 생기는 것(박승민, 1993)과 같이 갈등은 역기능적 대인 관계를 낳기도 한다. 또한 Cramer(2000)의 연구에서도 이성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빈도 자체가 이성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갈등해결 전략 또한 이성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밝힌 바 있다.

갈등은 적대적인 관계 뿐 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또래관계에서 겪는 갈등은 단순히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비교할 때, 비슷한 빈도 혹은 더 자주 발생하며,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보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대인관계에 더 중요한 변인임(Hartup et al. 1993)에 틀림없다.

갈등해결은 다른 상호작용보다 관계의 특성을 더 잘 밝히는 설명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파괴적 행동 패턴을 바꾸거나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분노가 공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등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는 높은 질적 수준에 있다(Canary, Cupach & Messman, 1995)고 본다. 결국 관계 내에서의 갈등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보다는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할 때에 비로소 관계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청소년의 시기에 도 이러한 갈등은 빈번히 찾아온다.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을 끌고 있는 변인이 바로 갈등이고, 이러한 갈등을 개인이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친구관계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이희영, 천태복,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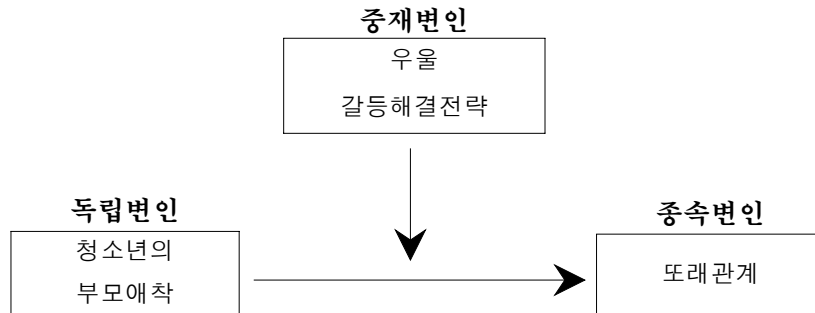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청소년의 성숙한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고(김지현, 2002), 이러한 갈등해결전략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Ⅲ.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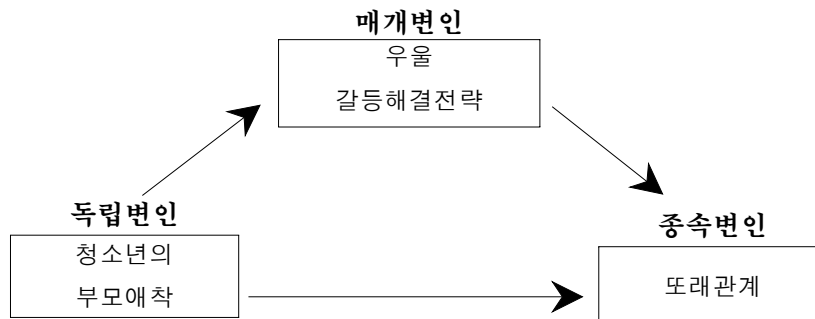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애착을 독립변인으로, 또래관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우울과 갈등 해결전략을 각각 중재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변인들을 각각 중재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모형



<그림 2>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모형



위와 같은 연구모형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중재효과를 지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500명을 대상으로 각 학급의 자율학습, 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의 감독 하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77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153부를 제외한 324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총 324명 중 남학생은 211명(65.1%), 여학생은 113명(34.9%)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거주 형태, 종교, 친한 친구의 수, 부모님 직업여부를 조사하였다. 자세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N(=324)	%
성별	남	211	65.1
	여	113	34.9
학년	중1	160	37.7
	중2	86	25.9
	중3	124	36.4
종교	기독교	123	37.0
	천주교	33	10.2
	불교	39	12.0

	무교	127	39.2
	기타	5	1.5
<hr/>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	304	93.8
	부모님과 별거 중이다(자취, 하숙)	3	0.9
거주 형태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다.	2	0.6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다.	13	4.0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산다.	1	0.3
	기타	1	0.3
<hr/>			
	없다	4	1.2
	1명	5	1.5
친한 친구의 수	2명	10	3.1
	3명	27	8.3
	4명	20	6.2
	5명	17	5.2
	6명이상	241	74.4
<hr/>			
부모 직업 여부	맞벌이	176	54.3
	아버지만 일하심	137	42.3
	어머니만 일하심	10	3.1
	두 분 다 무직	1	0.3
<hr/>			

2. 측정도구

1) 부모애착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번안하여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IPPA와 같이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키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또래 애착척도는 제외하였다. IPPA-R은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반대로 채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애착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들이 우울 정도를 측정하려는 미국국립 정신보건연구원(NIMH)에 제작한 도구로서 김정숙(2003)의 척도를 수정한 이지원(2006)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성인용이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많이 사용되어졌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 또한 이미 입증된 바 있다(김정숙, 2003; 이보경, 2004). 기존의 우울척도는 임상적 진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이 척도는 현재 피검자의 주관적인 우울감을 자기 보고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우울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없었다~ 4점: 매일 자주 있었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80점까지로 하였고 경도 이상의 우울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21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 이었다.

3) 갈등해결전략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Alexander(2000)가 제작한 CRM:FPC (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Friends, Parents, Co-workers)척도를 최창욱 등 (200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협력유형, 공격유형, 회피유형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협력유형'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구의 말을 이해하려 하며, 갈등해결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유형'에는 친구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피유형'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화를 삭이거나 갈등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총 30 문항으로 협력유형 12문항, 공격유형 13문항, 회피유형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결코 그렇지 않다~ 5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5 이었다.

<표 3> 갈등해결전략의 구성 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협력형	3, 6, 7, 10, 18, 22, 25, 26, 29, 32, 33, 35	12
공격형	2, 4, 5, 9, 11, 12, 14, 15, 16, 20, 23, 27, 34	13

회피형	1, 8, 13, 21, 31	5
전체	30문항	

4) 또래관계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Hudson(1987) 개발한 IPR(Index of Peer Relations)척도를 김의섭(2001)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IPR은 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 관계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거의 그런 일 없다~ 5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있고, 부정적인 문항은 반대로 채점하였다. 가능한 총 점수 범위는 25~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 이었다.

<표 4> 또래관계 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긍정적 또래관계	1, 4, 7, 8, 11, 12, 15, 16, 17, 18, 21, 22	12
부정적 또래관계	2, 3, 5, 6, 9, 10, 13, 14, 19, 20, 23, 24, 25	13
전 체	25문항	

3.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통해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청소년의 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청소년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은 또래관계와 약 23%의 상관이 있었고, 부모애착과 갈등해결전략($r=.084$, $p=n.s$), 부모애착과 회피형 갈등해결전략($r=-.085$, $p=n.s$)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협력형 갈등해결전략($r=.364$, $p<0.01$), 공격형 갈등해결전략($r=-.199$, $p<0.01$)이 부모 애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이 또래관계와 가장 높은 부적상관($r=-.285$, $p<0.01$)을 보였다. 또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는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낮고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래관계도 좋을 의미를 의미한다.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경우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할수록 또래관계가 좋아짐을 의미한다.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심할수록,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일수록 또래관계가 나빠짐을 의미한다.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

변인	1.부모애착	2.우울	3.갈등해결전략(전체)	4.협력형갈등해결전략	5.공격형갈등해결전략	6.회피형갈등해결전략	7.또래관계
1.부모애착	1						
2.우울	-.212**	1					
3.갈등해결전략(전체)	.084	.305**	1				
4.협력형갈등해결전략	.364**	.010	.526**	1			
5.공격형갈등해결전략	-.199**	.305**	.620**	-.254**	1		
6.회피형갈등해결전략	-.085	.178**	.392**	-.032	.096	1	
7.또래관계	.228**	-.285*	-.161*	.232**	-.296**	-.301**	1

* $p < .05$ ** $p < .01$

2.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또래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1단

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애착을, 2단계에서는 중재변인으로 가정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을 투입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중재변인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였다.

1) 우울의 중재효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중재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Delta F=17.695, p<.001$)과 우울($\Delta F=21.201, p<.001$)은 또래관계에 주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애착과 우울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Delta F=.053, p=.818$), 우울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중재효과

단계	변인	β	R^2	$^4R^2$	4F
1	부모애착	.228***	.052	.034	17.965***
2	우울	-.248***	.111	.059	21.201***
3	부모애착 × 우울	.081	.111	.000	.053

*** $p<.001$

$^4R^2$ 는 R^2 의 변화량을 의미함.

4F 는 F의 변화량을 의미함.

2)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 부모애착

을, 2단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Delta F = 17.695, p < .001$)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Delta F = 8.942, p < .05$)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부모애착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Delta F = .143, p = .705$)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단계	변인	β	R^2	ΔR^2	ΔF
1	부모애착	.228***	.052	.052	17.695***
2	협력형 갈등해결전략	.172***	.078	.026	8.942**
3	부모애착 × 협력형 갈등해결전략	-.170	.078	.000	.143

** $p < .01$, *** $p < .001$

3)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서 부모애착을, 2단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Delta F = 43.510, p < .001$)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Delta F = 67.840, p < .001$)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애착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Delta F = .126, p = .723$)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단계	변인	β	R^2	$^4R^2$	4F
1	부모애착	.228***	.052	.052	17.695***
2	공격형 갈등해결전략	-.261***	.117	.065	23.7590***
3	부모애착 × 공격형 갈등해결전략	.608	.124	.006	2.265

*** $p < .001$

3.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부모와의 애착 및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법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조건이 전체되는데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후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그 효과(β 값)가 줄어들어야 한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더 약하게 나타나면 매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권혜경, 2004 ; Baron & Kenny, 1986).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전제조건을 확인한 결과, 부모애착과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r=-.076$, $p=n.s$)으로 밝혀짐으로서<표 5 참고> 회피형 갈등해결전략과의 매개효과는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 및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만을 알아보았다.

1) 우울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5 참고>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우울, 부모애착과 또래관계, 우울과 또래관계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모애착을 투입하고,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애착을 종속변인인 또래관계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부모애착과 우울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또래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9>에 서와 같이 우울은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beta=-.212$, $p<.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부모애착은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228$, $p<.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우울이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48$, $p<.001$),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보다(β

=.228, $p<.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176$, $p<.001$). 그러므로 우울은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9>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부모애착→우울	-.212***	.045	15.131***
2 독립→종속	부모애착→또래관계	.228***	.052	17.695***
3	독립→종속	.176***	.059	21.201***
	매개→종속	우울→또래관계		

*** $p<.001$

2)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은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beta=.364$, $p<.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228$, $p<.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172$, $p<.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beta=.166$, $p<.01$). 그러므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은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0>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부모애착→협력형	.364***	.132	49.166***
2 독립→종속	부모애착→또래관계	.228***	.052	17.695***
3	독립→종속	.166**	.026	8.942**
	매개→종속	.172**		

** $p < .01$ *** $p < .001$

3)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은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beta = -.199, p < .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28, p < .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 = -.261, p < .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beta = .176, p < .01$). 그러므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은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1>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부모애착→공격형	-.199***	.040	13.346***
2	독립→종속	부모애착→또래관계	.228***	.052	17.695***
3	독립→종속 매개→종속	부모애착→또래관계 공격형→또래관계	.176** -.261***	.065	23.759***

** $p < .01$ *** $p < .001$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갖는 중재 및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애착은 또래관계 및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며 즐거움과 신뢰감을 가지고 친구관계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갖는다는 선행연구(홍주영, 2001 ; 이정미,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청소년이 맺는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애착은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갈등해결에 있어서 협력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의 결과(황주혜, 2006)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부모애착은 우울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과 부적 상관을 갖고, 회피형 갈등해결전략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애착이 낮은 경우 우울감이 높아지고(Bowlby, 1989), 갈등해결에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Davis, 1998)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애착이 높을수록 덜 우울하고,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또래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부모와의 애착이 낮으면 우울하고,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며 또래관계가 안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부모와의 애착과 상호작용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을 중재변인으로 가정하고 부모애착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중재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신빙성이 있었으므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효과가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검증에서 상호작용에 의한 설명이 매우 작은 이유로, 조사연구는 실험연구의 자료와 달리 독립변인의 분포가 평균 혹은 중앙치를 중심으로 많은 빈도가 모여 있고, 매우 적게 빈도가 극단 값에 존재하는 양상을 들 수 있다(박광배, 1994). 따라서 상호작용이 쉽고 크게 나타나기가 힘들고 결국엔 중재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종속변인을 측정할 때, 분할선 척도(line segment scale)가 아닌 단속적인 Likert척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많은 정보가 상실되고 오차가 개입함에 따라 상호작용효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박광배, 1994).

셋째, 부모 애착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청소년의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설명력 있게 나타났다. 즉 먼저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우울이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서 부분적 매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우울의 생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울 장애에 대한 취약성 요인을 형성하게 되고 (Greenberg, 1990)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우울 성향이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오송희 1999, 홍옥표 2002, 이정수 2006)를 지지했다.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됨(신현숙·이경성 외, 2004; 김윤정, 1999)으로 인해 결국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우울감을 유발하고, 우울감이 다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

은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 부분 매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애착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은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낮추고,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높이며 이것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될수록 청소년은 문제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장휘숙, 2000). 효율적으로 갈등을 다루고, 성숙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긍정적인 친구관계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지현, 2002)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간의 애착관계가 상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만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에 임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신뢰롭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관찰과 같은 객관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측정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 있어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이외에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부모애착유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없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때문에 부모 애착 유형에 관한 척도 개발이 후속 연구에서 요구되는 바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 매개변인으로 밝혀진 우울, 갈등해결전략을 통해 또래관계와 연관되는 과정적이고 역동적인 경로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부모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아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모애착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 청소년의 삶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실용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청소년의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청소년의 가정과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당면한 문제 해결방법과 발달의 촉진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상담까지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해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효과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게끔 함으로써 청소년의 또래관계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구경아(2007). *인문계고등학생의 애착과 자아정체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권창현, 심희선(2003). 청소년의 심리유형과 애착과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Vol.10, No1*
- 권혜경(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경희(2008). *애착,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귀숙, 정영옥, 이나혜(2003). 아동의 애착과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Vol.6 No.2*
- 김나리(2002)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민동(2002).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 일반청소년 집단과 재소 중인 비행청소년 집단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선희, 이은정, 오경자, 박중규(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20 No.1*
- 김윤정(1999). *우울성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정, 권정혜(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Vol.17 No.1

- 김의섭(2001).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또래관계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김지현(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민영숙(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공격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경희(2005). *부와 모에 대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고운, 이기학(2007).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수용 및 친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Vol.19 No.1*
- 박광배(1994). 너무 작은 설명변량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 중다회귀분석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Vol.13 No.1*
- 사공미숙(2006). *대학생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신노라, 안창일(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Vol.23 No.4*
- 신의진, 이경숙, 정석진, 홍현주(2003). 한국 애착장애 아동의 발달 및 임상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Vol.16 No.4*
- 신지옥(2005).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현숙(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수평적 대인관계 성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Vol.12 No.1*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

/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Vol.16 No3

심보숙(2007). *부모-아동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안희애(2006). *애착과 정서표현갈등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오송희(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교육대학원

오송희(1999).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 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옥정, 오윤희, 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 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 제조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임상* Vol.20 No.2

윤현수, 오경자(2004).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Vol.23 No.3

이경남(2002).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인과모형*.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이경남(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2, No.1

이경숙, 엄혜련, 정영운(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AAI)에 따른 아동기 양육 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6 No.3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청소년의 애착 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神經精神醫學*, Vol.41 No.2

- 이시은, 이재창(2004).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Vol.16 No.2*
- 이시은, 이재창(2008)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Vol.20 No.1*
- 이은채(2005).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 또래 애착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이정미(2005). *초등 고학년의 성과 부모애착 안정성에 따른 친구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 이정수(2006)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정수(2006).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지원(2006).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비행성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 대학교
- 이지현(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애착과 인지왜곡의 중재 및 매개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창숙(2007). *부모양육태도와 애착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이희영, 천태복(2005).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Vol.17 No.2, 228-239*
- 장안나(2008). *청소년이 지각한 초기대상관계와 또래 및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장재홍(2006). 이성교제의 경험, 애정관계 행동 및 성인 애착 차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Vol.18 No.1*
- 장휘숙(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 대처방식의 중재 역할을 중심으로

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Vol 13 No3*

정선옥(2002).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애착유형 및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社會福祉研究, Vol. No.20*

최창욱, 권일남, 문선량(2004).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창욱, 김정주, 조영희(2005). 청소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한상철(1998) *청소년학 개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홍미자(2006). *한 부모 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우울성향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홍옥표(2002). *초등학생의 애착과 자아 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홍주영(2001).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황숙영(2007).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황주혜(2006). *청소년의 애착관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이보경(2004).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 유형이 우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박승민(1993). *갈등관리훈련을 통한 대인간 갈등대처방식의 변화과정*.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김정숙(2003). *휴대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동성*. 단국대학교

허선이(2005).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 전략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안희애(2006). *애착과 정서표현갈등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Alexander(2000). *Prosocial behaviors of adolescents in work and family life: Empath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ith parents and peers*. Karen Leigh, The Ohio State University

Ainsworth, M. D. S., Behehar, M, C., War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Erlbaum.

Ainsworth, M. D. S.(1982). In C. M. Parkes. & K.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Ann Neary and Stephen Joseph(1994),"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gir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6, No. 1, pp. 183-186.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Armsden, G. C.& Greenberg, M. T. Burke, P. M.& Mitchell J.R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thlomew, K. (1990). Avoide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7, 147-178
- Beck, A. T. (1976).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Bowlby, J. (1969). *Attachment: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9). *Secure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
- Canary D. J., cupach, W.R., Messman, S. J., (1995). *Relationship conflict: Conflict in parent-child, friend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 London : sage publication
- Carnelley, K.B Pietromonaco, P.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hchology*, 66, 127-140
- Collins, N. L,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 Collins, W. A. Laursen, B., & Mortensen, N (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 for

-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 Cram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34(3),337-341
- Freeman, H. & Brown, B. B. (2000).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 Fuligni A. J. & Eccles J. S.,(1993),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early adolescents' orientation toward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pp. 622-632.
- Greenberg, M. T. Siegel, J.M, & Leitech, C, J(1984).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333-350.
- Hartup W. W., French D. C., Laursen, B., Johnston, M. K., & Ogawa, J.R.(1993)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 in middle childhood: Behavior in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 445-454
- K. Bartholomew & K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vol 5, pp. 53-90)
- Kircler, E. Palmonari, A. & Pombeni, M.(1993). *Developments Tasks and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and their Family*. Adolescence and Its Social Worlds, 145-167.

- Lewinsohn, P. M. (1974). A behavioral approach to depression. In R. J.F riedman & M. Katz(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Washington, DC: Winston -Wiley
- Levy, M.,& Davis, K(1998) Love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 471
- Liu, Y. L. (2006). *Paternal/Maternal Attachment, Peer Support, Social Expectatlons of peer Interaction, and Depressiv Symptoms, Adolescence*, 41(164), 705-722.
- Papini, D. R.(1992). Adolescence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4)
- Skolnick, A(1986). *Early attach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course*. In P. B Baites
- Raja, S. N., McGEE, R, Stanton, W. R.(1992).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and peer and psychological well-bing in adolescence. *Journal Youth and adolescence*, 21(4)

ABSTRACT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Kim, Eun Ji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324 students recruited from middle schools in Metropolitan Seoul.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R), 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Friends, Parents, Co-workers(CRM:FPC), Index of Peer Relations(IPR) were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er relationship and cooperate type of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while it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depression and aggressive typ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were not too significant.

Third, the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Depression,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Parent Attachment, Peer Relationship,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부 록

부록 1. 부모애착 척도

부록 2. 우울 척도

부록 3. 갈등해결전략 척도

부록 4. 또래관계 척도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친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또한 좋은 답과 나쁜 답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모습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 연구실

지도교수 이 정 윤
연구자 김 은 진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1	2	3	4	5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5
6	부모님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1	2	3	4	5
8	부모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1	2	3	4	5
1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 나빠진다.	1	2	3	4	5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한다.	1	2	3	4	5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고려해주신다.	1	2	3	4	5
1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1	2	3	4	5
14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5
16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1	2	3	4	5
17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낀다.	1	2	3	4	5
18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1	2	3	4	5
1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주신다.	1	2	3	4	5
20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주신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22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1	2	3	4	5
2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1	2	3	4	5
24	나의 마음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25	만약 부모님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1	2	3	4	5

* 아래 문장을 읽고 최근 1주일동안 각 문항과 같은 생각이나 느낌이 얼마나 떠올랐는지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없었다	한두번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일 자주 있었다.
1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성가시거나 귀찮게 느껴졌다.	1	2	3	4
2	별로 먹고 싶지 않았다. 또는 입맛이 없었다.	1	2	3	4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줘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1	2	3	4
4	나도 다른 사람만큼 기분이 좋았다.	1	2	3	4
5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1	2	3	4
6	우울했다.	1	2	3	4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8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	1	2	3	4

	문항	전혀 없었다	한두번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일 자주 있었다.
9	내 인생을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다.	1	2	3	4
10	무서움을 느꼈다.	1	2	3	4
11	잠을 설쳤다.	1	2	3	4
12	행복했다.	1	2	3	4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1	2	3	4
14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15	사람들이 불친절했다.	1	2	3	4
16	인생이 즐거웠다.	1	2	3	4
17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1	2	3	4
18	슬픔을 느꼈다.	1	2	3	4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1	2	3	4
20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1	2	3	4

다음은 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행동이나 생각, 느낌을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회피한다.	1	2	3	4	5
2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1	2	3	4	5
3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4	그 친구를 무시한다.	1	2	3	4	5
5	친구에게 비꼬는 투로 말한다.	1	2	3	4	5
6	갈등을 무마하려 노력한다.	1	2	3	4	5
7	친구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한다.	1	2	3	4	5
8	조용히 마음 속으로 화를 삭인다.	1	2	3	4	5
9	그 친구에게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10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1	2	3	4	5
11	그 친구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	1	2	3	4	5
12	그 친구에게 화내고 자리를 벗어나다.	1	2	3	4	5
13	내 감정을 그 친구에게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화가 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1	2	3	4	5
15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것을 친다.	1	2	3	4	5
16	말이나 행동으로 그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1	2	3	4	5
17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	1	2	3	4	5
18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말한다.	1	2	3	4	5
20	그 친구를 무시하는 친구를 찾는다.	1	2	3	4	5
21	그 갈등이 무사히 지나가길 희망하며 아무 말 하지 않는다.	1	2	3	4	5
22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1	2	3	4	5
23	친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복을 한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에게 중재를 요청한다.	1	2	3	4	5
25	그 친구와 함께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는다.	1	2	3	4	5

	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6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7	그 갈등상황에 계속해서 집착한다.	1	2	3	4	5
28	너무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자제한다.	1	2	3	4	5
29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1	2	3	4	5
30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으려 한다.	1	2	3	4	5
31	내 주장을 포기한다.	1	2	3	4	5
32	갈등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생각한다.	1	2	3	4	5
33	갈등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1	2	3	4	5
34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1	2	3	4	5
35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한다.	1	2	3	4	5

아래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문 항	거의 그런 일이 없다	없는 편이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들과 아주 잘 지낸다.	1	2	3	4	5
2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1	2	3	4	5
3	내 친구들은 나를 괴롭힌다.	1	2	3	4	5
4	내 친구들은 정말 나를 존경하는 것 같다.	1	2	3	4	5
5	나는 친구들의 집단에 속하는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문 항	거의 그런 일이 없다	없는 편이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6	내 친구들은 아부꾼이다.	1	2	3	4	5
7	내 친구들은 정말로 나를 이해한다.	1	2	3	4	5
8	내 친구들은 나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9	나는 정말 내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1	2	3	4	5
10	나는 현재의 내 친구들을 미워한다.	1	2	3	4	5
11	내 친구들은 나를 불러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12	나는 현재의 내 친구들을 정말 좋아한다.	1	2	3	4	5
13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14	나는 내게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15	내 친구들은 내게 아주 좋다.	1	2	3	4	5
16	내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한다.	1	2	3	4	5
17	내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내 친구들은 나를 즐겁게 한다.	1	2	3	4	5
19	내 친구들은 나를 아는 체도 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20	나는 지금의 친구들 속에 끼고 싶지 않다.	1	2	3	4	5
21	내 친구들은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매우 존중한다.	1	2	3	4	5
22	나는 내 친구들에게 중요한 일원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23	나는 내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없다.	1	2	3	4	5
24	내 친구들은 나를 우습게 본다.	1	2	3	4	5
25	내 친구들은 정말 나에게 흥미가 없다.	1	2	3	4	5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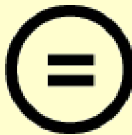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증재 및 매개효과-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은 진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 및 매개효과-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은 진

인 준 서

김은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 및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24명이었으며,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IPPA-R),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갈등해결전략 척도(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Friends, Parents, Co-workers: CRM;FPC), 또래관계 척도(Index of Peer Relations: IPR)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청소년의 애착은 또래관계 및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우울 및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부모애착이 우울, 갈등해결전략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중재효과를 알아본 결과, 이들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 갈등해결전략, 매개효과, 중재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애착에 따른 또래관계 6
- 2. 부모애착, 우울 및 또래관계 8
- 3. 부모애착, 갈등해결전략 및 또래관계 10

III. 연구 문제

- 1. 연구 문제 12

IV.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14
- 2. 측정도구
 - 1) 부모애착 16
 - 2) 우울 16
 - 3) 갈등해결전략 17
 - 4) 또래관계 18
- 3.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19

V. 연구 결과

1.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20
2.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21
1) 우울의 중재효과	22
2)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22
3)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23
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24
1) 우울의 매개효과	25
2)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26
3)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27

VI. 논의

.....	29
-------	----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자기- 타인 이원 모델에 따른 성인 애착 4유형	7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
<표 3> 갈등해결전략의 구성 내용	16
<표 4> 또래관계 척도의 구성내용	17
<표 5>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	21
<표 6>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의 중재효과	22
<표 7>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23
<표 8>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24
<표 9>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26
<표 10>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27
<표 11>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28

그림 목 차

<그림 1>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중재모형	13
<그림 2>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매개모형	1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의미와 이유를 형성해 나간다. 특히 청소년기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습득해 나가는 시기이고, 이러한 대인관계는 다시 청소년기의 이후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대인관계의 결핍이나 문제는 생활의 부적응으로 삶을 위협하고, 이후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한상철, 1998). 즉,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면 인간으로서의 긍정적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은 힘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관계 맺기 및 유지, 친밀감과 자기 노출, 지지행동 등이 애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것은 애착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지지하며, 대인관계를 이해하는데 애착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정희, 심혜숙, 2007).

애착은 개인의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걸쳐 삶의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다. 초기 애착 이론에서는 어머니와 유아와의 관계 속 애착 만이 연구되었으나, 현재에는 Bowlby의 내적작동모델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애착은 전 생애 기간 동안의 대인관계의 기초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해 대인관계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최초의 인간관계 즉,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인 애착과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이다(이창숙, 2007). 특히 가족기능과 지

각된 유능감, 사회적 역할 요구 등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 가치감이 높고 우울 증상 수준이 낮아 정서적 적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발달적 과도기에 애착 행동체계가 더욱 활성화되며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함을(Papini & Roggman, 1992) 알 수 있다. 결국 부모와의 높은 애착 안정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Raja, 1992).

애착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와 타인에 대해 통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안정 애착 집단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자기와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불안정 애착집단은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자기와 부모 표상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애착 집단은 소극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이시은, 이재창, 2004). 그리고 애착의 안정성이 높고 거부성과 두려움성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대인관계 특성을 보였으며, 안정성이 낮고 거부성과 두려움성이 높아질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대인관계 특성을 가진다(안희애, 2006).

그러나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낮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대인관계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의 애착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이 부정적 대인관계로 바로 이어지기 보다는,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혹은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중재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밝혀졌는데, 이 중 많이 논의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로 우울을 꼽을 수 있다.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며, 청소년기에 빈번히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이다(이경남, 2003).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대인관계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밝혀 왔을 만큼, 우울은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

적 적응 문제와 병행되어 나타난다.

단극성 우울증의 유발 및 지속과 관련된 특징적인 대인관계 과정을 연구한 김은정, 권정혜(1998)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상 특징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 사회적 지지 부족, 부족한 사회 기술 그리고 대인관계 내에서의 특징적인 행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수, 오경자(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울집단은 대인관계문제 총점에 있어서 비우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각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영역에 대해서도 비우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를 통해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우울 증상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만성적인 우울집단의 경우는 일시적인 우울증상을 경험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갈등을 더 많이 유발시키고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결과(Burns, Sayers & Moras)도 있다.

이러한 우울은 또한 부모와의 애착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Greenberg(1987)는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우울, 불안 등의 혼란이 낮다고 하였고 Peter et al(2001)은 안정 애착 유형이 불안정 애착 유형보다 불안과 우울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불안정 애착 집단이 안정 애착 집단보다 두 배의 우울증 발병률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Bifulco, 2001)를 통해 부모와의 애착이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애착과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갈등해결전략이 있다. 갈등해결전략은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하여 갈등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성취하는 방식(김나리, 2002)이다. 이러한 갈등 해결 전략을 어떻게 선택하여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성격과 질 만족도가 결정된다(허선이, 2005).

회피와 불안 / 양가애착 사람들이 안정애착 사람들보다 이성 교제 관계에

서 갈등 해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안/양가 애착의 경우에는 갈등 상황에서 쉽게 이성을 잃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비난하는 경향이 있고, 회피 애착의 경우에는 갈등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Levy & Davis, 1998; 허선이, 2005).

그러나 갈등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사건이고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 따른 대응이 관계 유지와 만족도에 있어 주요한 영향(김경희, 2008)을 미친다는 점에서 갈등해결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갈등은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생성하며, 유지 종결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Collins et al, 1997), 청소년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래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은 갈등에 직면하여 이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해결된 결과가 다시 상대방에게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은 어떠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약 이들 변인들이 중재효과가 있다면, 또래관계에 미치는 애착의 효과가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있다면, 애착이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애착이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변인들이 매개효과가 있다면, 부모와의 애착이 안 좋더라도 우울하지 않게 도와주고 효과적 갈등해결전략을 만든다면 또래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즉, 매개변인에 개입함으로써 또래관계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 및 중재효과가 확인된다면, 애착

이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라는 기제를 통해 또래관계와 연관되는 보다 과정적이고 역동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우울을 낮추게끔 하고, 효과적인 갈등해결전략을 활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적 개입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애착에 따른 또래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눈을 맞추는 순간부터 죽는 그 날까지 인간은 부모와 또래,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를 넓혀나간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애정적인 관계들은 형성되기 마련이고, 이는 애착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진다.

Bowlby는 영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단순하고 일방적인 ‘의존성’이라는 개념 대신 ‘애착’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그는 애착(Attachment)을 한 인간이 대부분의 가까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하였고, 양육자와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발달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하였다(Bowlby, 1973). 이와 비슷하게 Ainsworth도 애착을 인간이나 동물이 그 자신과는 다른 특별한 대상과의 사이에 형성하는 애정적인 유대관계라고 정의한 바 있다.

애착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는 Bowlby 주장을 근거로, 최근에는 유아기에서만 애착을 측정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기 · 성인기까지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Bowlby의 주장에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 내적 작동모델은 한 개인이 자신과 세계, 사건에 대해 갖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과 관련된 행동, 사고, 느낌을 조절하고 해석하고 예견하는 것을 돕는다(박경희, 2005). 유아기동안 형성된 애착 관계로부터 형성된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이 청소년기 이후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밀바탕이

되었다.

애착을 안정적으로 경험한 아동의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갖게 되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했던 아동의 경우에는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신의 가치 또한 확신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 사회에 대한 기대 또한 달라지게 되며, 지속적으로 대인관계 속 상호 작용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Collins & Read(1994)는 내적작동모델이 부모 이외에도 애착 인물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부모, 친구, 이성교제 혹은 결혼 관계 등과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개인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애착은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으로 분류(Ainsworth, 1978)되기도 하고 안정형(secure), 몰두형(preoccupied), 거부-회피형(dismissing), 공포-회피형(fearful) 등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 분류하기도 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0).

안정형(secure)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몰두형(preoccupied)은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의존욕구가 강하고 중요한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 여긴다(김은정, 권정혜, 1998). 거부-회피형(dismissing)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립심을 유지하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공포-회피형(fearful)은 거부형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지만, 이에 더불어 자신 또한 가치가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대인관계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기모델

		긍정적	부정적
		타인모델	안정형(secure)
	부정적	거부-회피형(dismissing)	공포-회피형(fearful)

〈표 1〉 자기- 타인 이원 모델에 따른 성인 애착 4유형

(Bartholomew & Horowitz, 1990)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의 애착 유형 중에서는 안정형이 가장 많고 다음이 몰두형, 거부형이며 제일 적은 유형은 회피형으로 나타났다(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이는 성인의 애착 유형이 안정형 > 양가형 > 회피형 순으로 나타난 논문들(신노라, 안창일, 2004)과 일치한다. 비행집단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양가형, 회피형에 해당하는 몰입형과 거부형의 비율도 유의하게 많았다는 결과들도 있다(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 이경숙, 엄혜련, 정영운, 2004).

2. 부모애착, 우울 및 또래관계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애착 안정성은 인지 도식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인지 도식은 자신과 세계를 평가하는 규칙을 제공하므로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오송희, 1998).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개인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도식 자체가 부정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도식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경험과 접하게 되면서 우울 증상을 유발시키는 통로

를 거치게 된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또래애착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은 낮아지며,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나쁠수록 청소년의 우울은 높아진다(이정수, 2006).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애착은 고등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이경님, 2003) 결과도 있다. 결국 안정적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지니게 하며, 이에 영향을 받아 우울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직접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역할과 더불어,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게 되고, 높아진 자기존중감에 의해 우울 또한 감소되는 간접적 영향도 있을 만큼(이경님, 2002) 애착은 우울과 직접·간접관계가 있다.

Carnelley의 연구(1994)에서는 비임상적 우울증은 회피형 집단과 관련되고, 임상적 우울증은 몰입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몰입형과 두려움형은 우울과 상관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인 인지와 대인관계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권정혜, 1998). 이로 미루어보아 애착 유형들은 우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적 강화와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것이 우울한 증상을 다시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Lewinsohn, 1974).

우울 증상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만성적인 우울집단의 경우는 일시적인 우울증상을 경험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갈등을 더 많이 유발시키고 만족도가 저하된다(Burns, Sayers & Moras).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감을 호소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가지게 되며, 이는 심리적 부적응 및 우울증을 낳고(Bowlby, 1989) 이러한 우울증은 다시 비행, 학업부진 및 대인관계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우울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부모애착, 갈등해결전략 및 또래관계

대인 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애착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Cressey와 Hesson-Mcinnis(2001)는 애착 안정성과 갈등 해결 전략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애착은 내적 작동 모델을 통해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관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reeny, 1999).

안정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반응적인 자기 노출하는 동시에 갈등해결에 있어서 조정과 타협을 잘 하고 보다 지지적으로 해결한다(Freemey, Noller & Callan, 1994). 그러나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파괴적, 공격적 행동을 보이며 안정 애착 사람들보다 갈등해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경애, 1994). 또한 안정적 애착을 보일수록 갈등 상황 속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지만, 불안·양가형 애착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리지 않고 감정을 표현함으로 인해 관계 내에서의 갈등 경험도 더 많이 경험한다(김경희, 2008).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안절부절 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는 스트레스를 가져오기도 하고(김정희, 1998), 갈등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낳아 인간관

계의 자체의 단절이 생기는 것(박승민, 1993)과 같이 갈등은 역기능적 대인 관계를 낳기도 한다. 또한 Cramer(2000)의 연구에서도 이성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빈도 자체가 이성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갈등해결 전략 또한 이성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밝힌 바 있다.

갈등은 적대적인 관계 뿐 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또래관계에서 겪는 갈등은 단순히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비교할 때, 비슷한 빈도 혹은 더 자주 발생하며,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보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대인관계에 더 중요한 변인임(Hartup et al. 1993)에 틀림없다.

갈등해결은 다른 상호작용보다 관계의 특성을 더 잘 밝히는 설명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파괴적 행동 패턴을 바꾸거나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분노가 공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등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는 높은 질적 수준에 있다(Canary, Cupach & Messman, 1995)고 본다. 결국 관계 내에서의 갈등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보다는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할 때에 비로소 관계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청소년의 시기에 도 이러한 갈등은 빈번히 찾아온다.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을 끌고 있는 변인이 바로 갈등이고, 이러한 갈등을 개인이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친구관계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이희영, 천태복,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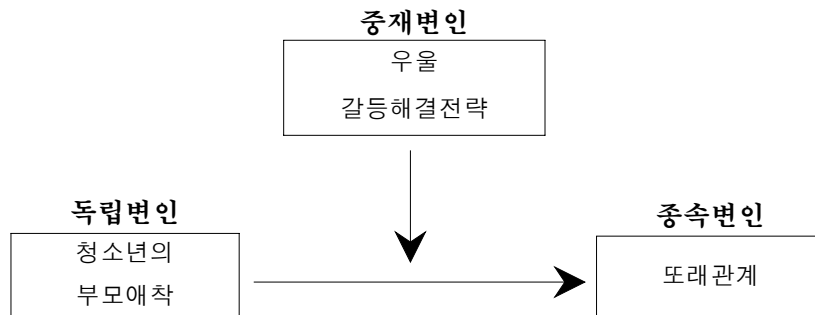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청소년의 성숙한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고(김지현, 2002), 이러한 갈등해결전략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Ⅲ.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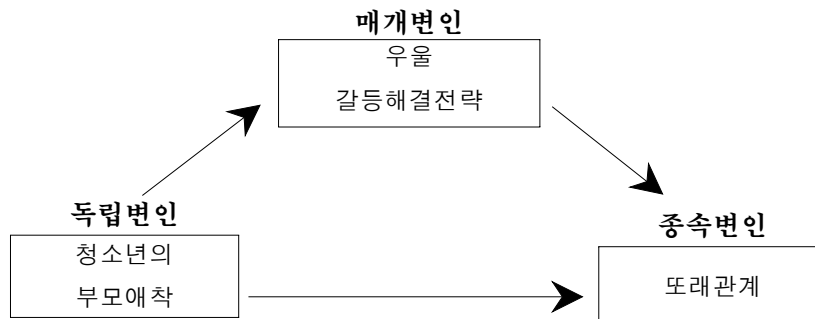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애착을 독립변인으로, 또래관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우울과 갈등 해결전략을 각각 중재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변인들을 각각 중재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모형



<그림 2>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모형



위와 같은 연구모형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중재효과를 지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500명을 대상으로 각 학급의 자율학습, 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의 감독 하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77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153부를 제외한 324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총 324명 중 남학생은 211명(65.1%), 여학생은 113명(34.9%)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거주 형태, 종교, 친한 친구의 수, 부모님 직업여부를 조사하였다. 자세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N(=324)	%
성별	남	211	65.1
	여	113	34.9
학년	중1	160	37.7
	중2	86	25.9
	중3	124	36.4
종교	기독교	123	37.0
	천주교	33	10.2
	불교	39	12.0

	무교	127	39.2
	기타	5	1.5
<hr/>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	304	93.8
	부모님과 별거 중이다(자취, 하숙)	3	0.9
거주 형태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다.	2	0.6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다.	13	4.0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산다.	1	0.3
	기타	1	0.3
<hr/>			
	없다	4	1.2
	1명	5	1.5
친한 친구의 수	2명	10	3.1
	3명	27	8.3
	4명	20	6.2
	5명	17	5.2
	6명이상	241	74.4
<hr/>			
부모 직업 여부	맞벌이	176	54.3
	아버지만 일하심	137	42.3
	어머니만 일하심	10	3.1
	두 분 다 무직	1	0.3
<hr/>			

2. 측정도구

1) 부모애착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번안하여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IPPA와 같이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키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또래 애착척도는 제외하였다. IPPA-R은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반대로 채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애착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들이 우울 정도를 측정하려는 미국국립 정신보건연구원(NIMH)에 제작한 도구로서 김정숙(2003)의 척도를 수정한 이지원(2006)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성인용이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많이 사용되어졌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 또한 이미 입증된 바 있다(김정숙, 2003; 이보경, 2004). 기존의 우울척도는 임상적 진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이 척도는 현재 피검자의 주관적인 우울감을 자기 보고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우울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없었다~ 4점: 매일 자주 있었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80점까지로 하였고 경도 이상의 우울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21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 이었다.

3) 갈등해결전략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Alexander(2000)가 제작한 CRM:FPC (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Friends, Parents, Co-workers)척도를 최창욱 등 (200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협력유형, 공격유형, 회피유형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협력유형’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구의 말을 이해하려 하며, 갈등해결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유형’에는 친구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피유형’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화를 삭이거나 갈등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총 30 문항으로 협력유형 12문항, 공격유형 13문항, 회피유형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결코 그렇지 않다~ 5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5 이었다.

<표 3> 갈등해결전략의 구성 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협력형	3, 6, 7, 10, 18, 22, 25, 26, 29, 32, 33, 35	12
공격형	2, 4, 5, 9, 11, 12, 14, 15, 16, 20, 23, 27, 34	13

회피형	1, 8, 13, 21, 31	5
전체	30문항	

4) 또래관계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Hudson(1987) 개발한 IPR(Index of Peer Relations)척도를 김의섭(2001)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IPR은 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 관계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거의 그런 일 없다~ 5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있고, 부정적인 문항은 반대로 채점하였다. 가능한 총 점수 범위는 25~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 이었다.

<표 4> 또래관계 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긍정적 또래관계	1, 4, 7, 8, 11, 12, 15, 16, 17, 18, 21, 22	12
부정적 또래관계	2, 3, 5, 6, 9, 10, 13, 14, 19, 20, 23, 24, 25	13
전 체	25문항	

3.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통해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청소년의 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청소년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은 또래관계와 약 23%의 상관이 있었고, 부모애착과 갈등해결전략($r=.084$, $p=n.s$), 부모애착과 회피형 갈등해결전략($r=-.085$, $p=n.s$)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협력형 갈등해결전략($r=.364$, $p<0.01$), 공격형 갈등해결전략($r=-.199$, $p<0.01$)이 부모 애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이 또래관계와 가장 높은 부적상관($r=-.285$, $p<0.01$)을 보였다. 또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는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낮고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래관계도 좋을 의미를 의미한다.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경우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할수록 또래관계가 좋아짐을 의미한다.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심할수록,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일수록 또래관계가 나빠짐을 의미한다.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

변인	1.부모애착	2.우울	3.갈등해결전략(전체)	4.협력형갈등해결전략	5.공격형갈등해결전략	6.회피형갈등해결전략	7.또래관계
1.부모애착	1						
2.우울	-.212**	1					
3.갈등해결전략(전체)	.084	.305**	1				
4.협력형갈등해결전략	.364**	.010	.526**	1			
5.공격형갈등해결전략	-.199**	.305**	.620**	-.254**	1		
6.회피형갈등해결전략	-.085	.178**	.392**	-.032	.096	1	
7.또래관계	.228**	-.285*	-.161*	.232**	-.296**	-.301**	1

* $p < .05$ ** $p < .01$

2.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또래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1단

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애착을, 2단계에서는 중재변인으로 가정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을 투입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중재변인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였다.

1) 우울의 중재효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중재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Delta F=17.695, p<.001$)과 우울($\Delta F=21.201, p<.001$)은 또래관계에 주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애착과 우울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Delta F=.053, p=.818$), 우울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중재효과

단계	변인	β	R^2	$^4R^2$	4F
1	부모애착	.228***	.052	.034	17.965***
2	우울	-.248***	.111	.059	21.201***
3	부모애착 × 우울	.081	.111	.000	.053

*** $p<.001$

$^4R^2$ 는 R^2 의 변화량을 의미함.

4F 는 F의 변화량을 의미함.

2)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 부모애착

을, 2단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Delta F = 17.695, p < .001$)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Delta F = 8.942, p < .05$)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부모애착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Delta F = .143, p = .705$)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단계	변인	β	R^2	ΔR^2	ΔF
1	부모애착	.228***	.052	.052	17.695***
2	협력형 갈등해결전략	.172***	.078	.026	8.942**
3	부모애착 × 협력형 갈등해결전략	-.170	.078	.000	.143

** $p < .01$, *** $p < .001$

3)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서 부모애착을, 2단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Delta F = 43.510, p < .001$)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Delta F = 67.840, p < .001$)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애착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Delta F = .126, p = .723$)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중재효과

단계	변인	β	R^2	$^4R^2$	4F
1	부모애착	.228***	.052	.052	17.695***
2	공격형 갈등해결전략	-.261***	.117	.065	23.7590***
3	부모애착 × 공격형 갈등해결전략	.608	.124	.006	2.265

*** $p < .001$

3.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부모와의 애착 및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법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조건이 전체되는데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후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그 효과(β 값)가 줄어들어야 한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더 약하게 나타나면 매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권혜경, 2004 ; Baron & Kenny, 1986).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전제조건을 확인한 결과, 부모애착과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r=-.076, p=n.s$)으로 밝혀짐으로서<표 5 참고> 회피형 갈등해결전략과의 매개효과는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 및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만을 알아보았다.

1) 우울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5 참고>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우울, 부모애착과 또래관계, 우울과 또래관계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모애착을 투입하고,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애착을 종속변인인 또래관계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부모애착과 우울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또래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9>에 서와 같이 우울은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beta=-.212, p<.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부모애착은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228, p<.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우울이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48, p<.001$),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보다(β

=.228, $p<.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176$, $p<.001$). 그러므로 우울은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9>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부모애착→우울	-.212***	.045	15.131***
2 독립→종속	부모애착→또래관계	.228***	.052	17.695***
3	독립→종속	.176***	.059	21.201***
	매개→종속	우울→또래관계		

*** $p<.001$

2)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은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beta=.364$, $p<.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228$, $p<.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172$, $p<.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beta=.166$, $p<.01$). 그러므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은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0>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부모애착→협력형	.364***	.132	49.166***
2 독립→종속	부모애착→또래관계	.228***	.052	17.695***
3	독립→종속	.166**	.026	8.942**
	매개→종속	.172**		

** $p < .01$ *** $p < .001$

3)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은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beta = -.199, p < .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28, p < .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 = -.261, p < .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beta = .176, p < .01$). 그러므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은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1> 부모애착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부모애착→공격형	-.199***	.040	13.346***
2	독립→종속	부모애착→또래관계	.228***	.052	17.695***
3	독립→종속 매개→종속	부모애착→또래관계 공격형→또래관계	.176** -.261***	.065	23.759***

** $p < .01$ *** $p < .001$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갖는 중재 및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애착은 또래관계 및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며 즐거움과 신뢰감을 가지고 친구관계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갖는다는 선행연구(홍주영, 2001 ; 이정미,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청소년이 맺는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애착은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갈등해결에 있어서 협력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의 결과(황주혜, 2006)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부모애착은 우울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과 부적 상관을 갖고, 회피형 갈등해결전략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애착이 낮은 경우 우울감이 높아지고(Bowlby, 1989), 갈등해결에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Davis, 1998)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애착이 높을수록 덜 우울하고,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또래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부모와의 애착이 낮으면 우울하고,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며 또래관계가 안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이 부모와의 애착과 상호작용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을 중재변인으로 가정하고 부모애착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중재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신빙성이 있었으므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효과가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검증에서 상호작용에 의한 설명이 매우 작은 이유로, 조사연구는 실험연구의 자료와 달리 독립변인의 분포가 평균 혹은 중앙치를 중심으로 많은 빈도가 모여 있고, 매우 적게 빈도가 극단 값에 존재하는 양상을 들 수 있다(박광배, 1994). 따라서 상호작용이 쉽고 크게 나타나기가 힘들고 결국엔 중재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종속변인을 측정할 때, 분할선 척도(line segment scale)가 아닌 단속적인 Likert척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많은 정보가 상실되고 오차가 개입함에 따라 상호작용효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박광배, 1994).

셋째, 부모 애착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청소년의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설명력 있게 나타났다. 즉 먼저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우울이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서 부분적 매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우울의 생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울 장애에 대한 취약성 요인을 형성하게 되고 (Greenberg, 1990)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우울 성향이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오송희 1999, 홍옥표 2002, 이정수 2006)를 지지했다.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됨(신현숙·이경성 외, 2004; 김윤정, 1999)으로 인해 결국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우울감을 유발하고, 우울감이 다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

은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 부분 매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애착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은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낮추고,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높이며 이것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될수록 청소년은 문제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장휘숙, 2000). 효율적으로 갈등을 다루고, 성숙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긍정적인 친구관계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지현, 2002)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간의 애착관계가 상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만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에 임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신뢰롭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관찰과 같은 객관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측정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 있어서 우울과 갈등해결전략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이외에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부모애착유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없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때문에 부모 애착 유형에 관한 척도 개발이 후속 연구에서 요구되는 바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 매개변인으로 밝혀진 우울, 갈등해결전략을 통해 또래관계와 연관되는 과정적이고 역동적인 경로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부모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아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모애착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 청소년의 삶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실용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청소년의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청소년의 가정과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당면한 문제 해결방법과 발달의 촉진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상담까지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해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효과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게끔 함으로써 청소년의 또래관계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구경아(2007). *인문계고등학생의 애착과 자아정체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권창현, 심희선(2003). 청소년의 심리유형과 애착과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Vol.10, No1*
- 권혜경(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경희(2008). *애착,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귀숙, 정영옥, 이나혜(2003). 아동의 애착과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Vol.6 No.2*
- 김나리(2002)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민동(2002).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 일반청소년 집단과 재소 중인 비행청소년 집단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선희, 이은정, 오경자, 박중규(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20 No.1*
- 김윤정(1999). *우울성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정, 권정혜(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Vol.17 No.1

- 김의섭(2001).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또래관계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김지현(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민영숙(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공격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경희(2005). *부와 모에 대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고운, 이기학(2007).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수용 및 친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Vol.19 No.1*
- 박광배(1994). 너무 작은 설명변량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 중다회귀분석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Vol.13 No.1*
- 사공미숙(2006). *대학생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신노라, 안창일(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Vol.23 No.4*
- 신의진, 이경숙, 정석진, 홍현주(2003). 한국 애착장애 아동의 발달 및 임상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Vol.16 No.4*
- 신지옥(2005).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현숙(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수평적 대인관계 성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Vol.12 No.1*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

/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Vol.16 No3

심보숙(2007). *부모-아동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안희애(2006). *애착과 정서표현갈등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오송희(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교육대학원

오송희(1999).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 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옥정, 오윤희, 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 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 제조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임상* Vol.20 No.2

윤현수, 오경자(2004).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Vol.23 No.3

이경남(2002).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인과모형*.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이경남(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2, No.1

이경숙, 엄혜련, 정영운(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AAI)에 따른 아동기 양육 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6 No.3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청소년의 애착 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神經精神醫學*, Vol.41 No.2

- 이시은, 이재창(2004).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Vol.16 No.2*
- 이시은, 이재창(2008)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Vol.20 No.1*
- 이은채(2005).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 또래 애착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이정미(2005). *초등 고학년의 성과 부모애착 안정성에 따른 친구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 이정수(2006)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정수(2006).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지원(2006).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비행성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 대학교
- 이지현(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애착과 인지왜곡의 중재 및 매개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창숙(2007). *부모양육태도와 애착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이희영, 천태복(2005).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Vol.17 No.2, 228-239*
- 장안나(2008). *청소년이 지각한 초기대상관계와 또래 및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장재홍(2006). 이성교제의 경험, 애정관계 행동 및 성인 애착 차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Vol.18 No.1*
- 장휘숙(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 대처방식의 중재 역할을 중심으로

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Vol 13 No3*

정선옥(2002).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애착유형 및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社會福祉研究, Vol. No.20*

최창욱, 권일남, 문선량(2004).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창욱, 김정주, 조영희(2005). 청소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한상철(1998) *청소년학 개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홍미자(2006). *한 부모 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우울성향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홍옥표(2002). *초등학생의 애착과 자아 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홍주영(2001).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황숙영(2007).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황주혜(2006). *청소년의 애착관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이보경(2004).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 유형이 우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박승민(1993). *갈등관리훈련을 통한 대인간 갈등대처방식의 변화과정*.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김정숙(2003). *휴대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동성*. 단국대학교

허선이(2005).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 전략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안희애(2006). *애착과 정서표현갈등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Alexander(2000). *Prosocial behaviors of adolescents in work and family life: Empath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ith parents and peers*. Karen Leigh, The Ohio State University

Ainsworth, M. D. S., Behehar, M, C., War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Erlbaum.

Ainsworth, M. D. S.(1982). In C. M. Parkes. & K.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Ann Neary and Stephen Joseph(1994),"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gir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6, No. 1, pp. 183-186.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Armsden, G. C.& Greenberg, M. T. Burke, P. M.& Mitchell J.R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thlomew, K. (1990). Avoide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7, 147-178
- Beck, A. T. (1976).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Bowlby, J. (1969). *Attachment: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9). *Secure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
- Canary D. J., cupach, W.R., Messman, S. J., (1995). *Relationship conflict: Conflict in parent-child, friend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 London : sage publication
- Carnelley, K.B Pietromonaco, P.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hchology*, 66, 127-140
- Collins, N. L,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 Collins, W. A. Laursen, B., & Mortensen, N (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 for

-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 Cram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34(3),337-341
- Freeman, H. & Brown, B. B. (2000).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 Fuligni A. J. & Eccles J. S.,(1993),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early adolescents' orientation toward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pp. 622-632.
- Greenberg, M. T. Siegel, J.M, & Leitech, C, J(1984).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333-350.
- Hartup W. W., French D. C., Laursen, B., Johnston, M. K., & Ogawa, J.R.(1993)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 in middle childhood: Behavior in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 445-454
- K. Bartholomew & K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vol 5, pp. 53-90)
- Kircler, E. Palmonari, A. & Pombeni, M.(1993). *Developments Tasks and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and their Family*. Adolescence and Its Social Worlds, 145-167.

- Lewinsohn, P. M. (1974). A behavioral approach to depression. In R. J.F riedman & M. Katz(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Washington, DC: Winston -Wiley
- Levy, M.,& Davis, K(1998) Love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 471
- Liu, Y. L. (2006). *Paternal/Maternal Attachment, Peer Support, Social Expectatlons of peer Interaction, and Depressiv Symptoms, Adolescence*, 41(164), 705-722.
- Papini, D. R.(1992). Adolescence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4)
- Skolnick, A(1986). *Early attach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course*. In P. B Baites
- Raja, S. N., McGEE, R, Stanton, W. R.(1992).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and peer and psychological well-bing in adolescence. *Journal Youth and adolescence*, 21(4)

ABSTRACT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Kim, Eun Ji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324 students recruited from middle schools in Metropolitan Seoul.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R), 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Friends, Parents, Co-workers(CRM:FPC), Index of Peer Relations(IPR) were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er relationship and cooperate type of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while it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depression and aggressive typ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were not too significant.

Third, the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Depression,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Parent Attachment, Peer Relationship,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부 록

부록 1. 부모애착 척도

부록 2. 우울 척도

부록 3. 갈등해결전략 척도

부록 4. 또래관계 척도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친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또한 좋은 답과 나쁜 답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모습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 연구실

지도교수 이 정 윤
연구자 김 은 진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1	2	3	4	5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5
6	부모님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1	2	3	4	5
8	부모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1	2	3	4	5
1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 나빠진다.	1	2	3	4	5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한다.	1	2	3	4	5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고려해주신다.	1	2	3	4	5
1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1	2	3	4	5
14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5
16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1	2	3	4	5
17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낀다.	1	2	3	4	5
18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1	2	3	4	5
1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주신다.	1	2	3	4	5
20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주신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22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1	2	3	4	5
2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1	2	3	4	5
24	나의 마음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25	만약 부모님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1	2	3	4	5

* 아래 문장을 읽고 최근 1주일동안 각 문항과 같은 생각이나 느낌이 얼마나 떠올랐는지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없었다	한두번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일 자주 있었다.
1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성가시거나 귀찮게 느껴졌다.	1	2	3	4
2	별로 먹고 싶지 않았다. 또는 입맛이 없었다.	1	2	3	4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줘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1	2	3	4
4	나도 다른 사람만큼 기분이 좋았다.	1	2	3	4
5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1	2	3	4
6	우울했다.	1	2	3	4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8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	1	2	3	4

	문항	전혀 없었다	한두번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일 자주 있었다.
9	내 인생을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다.	1	2	3	4
10	무서움을 느꼈다.	1	2	3	4
11	잠을 설쳤다.	1	2	3	4
12	행복했다.	1	2	3	4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1	2	3	4
14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15	사람들이 불친절했다.	1	2	3	4
16	인생이 즐거웠다.	1	2	3	4
17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1	2	3	4
18	슬픔을 느꼈다.	1	2	3	4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1	2	3	4
20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1	2	3	4

다음은 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행동이나 생각, 느낌을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회피한다.	1	2	3	4	5
2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1	2	3	4	5
3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4	그 친구를 무시한다.	1	2	3	4	5
5	친구에게 비꼬는 투로 말한다.	1	2	3	4	5
6	갈등을 무마하려 노력한다.	1	2	3	4	5
7	친구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한다.	1	2	3	4	5
8	조용히 마음 속으로 화를 삭인다.	1	2	3	4	5
9	그 친구에게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10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1	2	3	4	5
11	그 친구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	1	2	3	4	5
12	그 친구에게 화내고 자리를 벗어난다.	1	2	3	4	5
13	내 감정을 그 친구에게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화가 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1	2	3	4	5
15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것을 친다.	1	2	3	4	5
16	말이나 행동으로 그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1	2	3	4	5
17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	1	2	3	4	5
18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말한다.	1	2	3	4	5
20	그 친구를 무시하는 친구를 찾는다.	1	2	3	4	5
21	그 갈등이 무사히 지나가길 희망하며 아무 말 하지 않는다.	1	2	3	4	5
22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1	2	3	4	5
23	친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복을 한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에게 중재를 요청한다.	1	2	3	4	5
25	그 친구와 함께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는다.	1	2	3	4	5

	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6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7	그 갈등상황에 계속해서 집착한다.	1	2	3	4	5
28	너무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자제한다.	1	2	3	4	5
29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1	2	3	4	5
30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으려 한다.	1	2	3	4	5
31	내 주장을 포기한다.	1	2	3	4	5
32	갈등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생각한다.	1	2	3	4	5
33	갈등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1	2	3	4	5
34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1	2	3	4	5
35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한다.	1	2	3	4	5

아래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문 항	거의 그런 일이 없다	없는 편이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들과 아주 잘 지낸다.	1	2	3	4	5
2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1	2	3	4	5
3	내 친구들은 나를 괴롭힌다.	1	2	3	4	5
4	내 친구들은 정말 나를 존경하는 것 같다.	1	2	3	4	5
5	나는 친구들의 집단에 속하는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문 항	거의 그런 일이 없다	없는 편이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6	내 친구들은 아부꾼이다.	1	2	3	4	5
7	내 친구들은 정말로 나를 이해한다.	1	2	3	4	5
8	내 친구들은 나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9	나는 정말 내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1	2	3	4	5
10	나는 현재의 내 친구들을 미워한다.	1	2	3	4	5
11	내 친구들은 나를 불러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12	나는 현재의 내 친구들을 정말 좋아한다.	1	2	3	4	5
13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14	나는 내게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15	내 친구들은 내게 아주 좋다.	1	2	3	4	5
16	내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한다.	1	2	3	4	5
17	내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내 친구들은 나를 즐겁게 한다.	1	2	3	4	5
19	내 친구들은 나를 아는 체도 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20	나는 지금의 친구들 속에 끼고 싶지 않다.	1	2	3	4	5
21	내 친구들은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매우 존중한다.	1	2	3	4	5
22	나는 내 친구들에게 중요한 일원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23	나는 내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없다.	1	2	3	4	5
24	내 친구들은 나를 우습게 본다.	1	2	3	4	5
25	내 친구들은 정말 나에게 흥미가 없다.	1	2	3	4	5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